

# 미혼남녀의 사회적 부모역할 인식과 교육요구도 및 준비도 - IPA 분석

## Recognition of Social Pre-parent Role & Educational Needs and Role Readiness for Unmarried Men and Women - IPA Analysis

제남주, 박미라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Nam Joo Je(poo4757@naver.com), Meera Park(minerva32@cs.ac.kr)

### 요약

본 연구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부모역할 인식과 교육요구도 및 준비도를 파악하여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K도의 미혼남녀 19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8년 11월 1일~ 20일까지였고, 자료분석은 IBM SPSS WIN/21.0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sheffe-test, paired t-test, IPA matrix 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대상자의 사회적 부모역할 인식은 평균 3.41±0.27점(5점 만점)이었다. 교육요구도는 평균 3.48±0.41점(4점 만점)이었고, 역할준비도는 평균 2.65±0.57점(4점 만점)으로, 교육요구도가 역할준비도보다 높았다. IPA matrix 로 분석한 결과, 강화해야 할 부분은 '가족관계나 부모역할'이었으며, 이 영역을 위해 투입될 노력을 다른 영역에 투입하도록 권장하는 영역은 '자기이해'로 나타났다. 더 이상의 노력 투입이 불필요하며 앞으로 개선을 요하는 영역은 '배우자의 선택 및 결혼'이었으며, 향후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할 영역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 영역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구도와 준비도가 높은 A 영역은 계속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요구도와 준비도가 낮은 C 영역을 더 이상의 노력투입이 불필요한 영역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준비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 중심어 : | 교육요구도 | 준비도 | 미혼 | 부모역할인식 | IPA 분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pre-parent education program by grasping parent role recognition, educational needs and readiness of unmarried men and women. The subjects were 196 unmarried male and female students from K-do.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1st to 20th, 2018, and analyzed using IBM SPSS WIN/21.0 to get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sheffe-test, paired t-test, and IPA matrix. The average score of recognition of social pre-parent role was 3.41 ± 0.27 (out of 5 points), educational needs was 3.48 ± 0.41 points (out of 4 points), and educational readiness was 2.65 ± 0.57 points (out of 4 points). educational needs being higher than educational readiness. Through IPA matrix analysis, the area to be strengthened was 'family relation or parent role', and 'self understanding' was the area to encourage putting effort into other evaluation attributes. The area where no further effort is needed and needs improvement in the future was 'spouse selection and marriage', and 'pregnancy and childbirth' and 'child rearing' were the areas to intensively improve.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establishing a standardized strategy in the area A, which has high degree of readiness and needs. Also, it is necessary to take strategies and countermeasures to raise the readiness of area C with low degree of readiness and needs, rather than accepting it as an unnecessary area of further effort input.

■ keyword : | Educational Needs | IPA Analsis | Parent Role Recognition | Role Readiness | Unmarried |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습니다.(NRF-2018R1C1B5043387)

접수일자 : 2019년 01월 09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2월 27일

수정일자 : 2019년 02월 12일

교신저자 : 박미라, e-mail : minerva32@cs.ac.kr

## 1. 서론

### 1.1 연구 필요성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만혼, 출산기피현상, 결혼관, 자녀관 등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출산 연령의 증가와 출산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자녀양육에 노력을 투자하기보다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자아실현과 성취를 하기 위해 힘쓰고 싶어하는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것이다[1].

인간은 부모와의 감정교류를 통해 애착을 형성하고, 부모와의 애착을 기본으로 하여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며, 부모에게 교육 받은 것을 토대로 삶을 배워나가고 인간으로서 성장해간다. 이처럼 인간을 인간답게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이야말로 시대가 흐르고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변하지 않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 볼 수 있다[2].

요즘 부모는 핵가족화로 인해 부모세대로부터 자연적인 양육교육을 받지 못하고 부모가 되어 양육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사회·문화적으로도 부모역할이 변화하여 새로운 양육정보를 필요로 한다[3]. 또한 이혼과 별거로 인한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였고, 청소년이 부모가 되는 가정 등이 증가하면서, 부모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4].

현대 산업사회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통적 자급자족 체계에서 의식주, 교육 등 생활영역은 분업화되었지만 자녀를 키우는 철학과 방법 등 부모역할 교육에 대한 분업화는 고려되지 않았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의 형태가 갈수록 핵가족화 됨에 따라 예비부모 또한 부모로서의 역할과 아동 발달이나 자녀양육, 가족관계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확대가족의 축소는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우는 부모역할과 자녀관에 대해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의 역할과 자녀양육을 부담스러워 하거나 자녀를 학대하는 문제 등의 왜곡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4] 그로 인해 젊은 세대는 결혼과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고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도 없으며 양육태도도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5]. 부모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부

모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요구의 증가와 이와 맞물린 부모로서의 부담이 증가하는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됨에 대한 준비와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예비부모를 위한 교육은 정규 교육기관에서 장기적이고 꾸준하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때, 부모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되고 효능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6]. 부모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부모는 아동의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등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일생동안 지속된다[7].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는 아동학대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 성인 남녀,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부부, 자녀의 연령에 따른 서로 다른 부모기에 놓인 부모들, 다양한 가족 형태로 인해 부모로서의 양육 지식 및 정보가 필요한 부모 등을 대상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생애초기에 영유아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게 돕기 위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8].

현대 핵가족 사회에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양육기술의 부재 및 아동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기 이전에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9]. 일반적으로 청년기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이며 결혼이나 가족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되지만, 부모됨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바람직한 부모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현실이다[4]. 정규교육기관에서 결혼 전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한다면, 발달적으로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고 부모됨의 욕구가 구체화되는 고등학생, 대학생이 적합한 수혜자로 선정될 수 있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자유로운 이성교제를 통해서 결혼, 자녀양육 및 가정생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며 인간관계의 땅이 확산된다[10]. 이성교제와 확산된 대인관계는 친밀감을 경험하게 하며 중·고등학교 시기보다 더욱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건강한 부모역할수행의 촉진과 자신감 있는 양육태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11]. 또한 이 시기는 정서적으로 보다 안정적이며 결혼과 진로에 대해서 객관적으

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부모역할과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와 교육에 대한 욕구가 다른 시기보다는 크기 때문에 예비부모교육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12].

현대의 부모역할은 단순히 예비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양육 및 부모역할, 자녀관, 출산계획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며 관심도가 높고, 지식수준 또한 높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단편적인 개별교육에서 벗어나 이들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인 통합된 프로그램으로 수준 높은 교육이 요구된다[13]. 대부분의 예비부모교육이 자녀 발달에 따른 바람직한 부모역할만을 강조하고 있고, 부모교육의 시대적 상황에 맞는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부모로서 양육 및 부모역할과 자녀관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예비부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하고 새로운 가족문화에 맞는 예비부모교육의 정립과 제공이 요구된다. 박소현[14]은 성별, 종교의 유무, 이성친구의 유무가 결혼관에 영향을 주며, 결혼관에 따라 사회적 예비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수준이 다르다고 보고하여, 이를 반영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항목의 상대적인 중요도와 수행도를 동시에 비교 분석할 수 있는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15]를 사용하여 미혼남녀들을 대상으로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도와 준비도 정도를 확인하고 그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추후 예비부모교육을 수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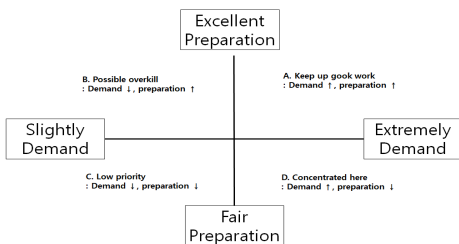


그림 1. IPA matrix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1) 대상자의 사회적 부모역할 인식, 예비부모교육 요구도 및 준비도를 파악한다.
- 2) 예비부모교육 요구도와 준비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파악한다
- 3) 예비부모교육 요구도와 준비도의 상호차이(Gap)을 파악한다
- 4) 예비부모교육 요구도와 준비도의 상호차이를 IPA Matrix로 분석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미혼남녀의 사회적 부모역할 인식, 예비부모교육 요구도 및 준비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K도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 1) 본 연구를 이해하고 협조할 것을 동의한 자
- 2) 질문지 내용을 읽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2.3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및 교육관련 특성과 사회적 부모역할 인식, 예비부모교육 요구도 및 준비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2.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교육관련 특성

대상자의 특성은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조하여 일반적 특성의 15개 문항(연령, 성별, 직업상태, 출생순위, 이성교제 유무, 아이돌봄 경험 유무, 결혼에 대

한 생각, 결혼적령기에 대한 생각, 결혼의향, 배우자 선택기준, 자녀계획, 자녀출산 어려움, 원하는 자녀수, 원하는 자녀성별, 자녀양육책임)과 교육관련 특성 8문항(예비부모교육 필요성, 교육경험 유무, 교육의 정규과정 포함, 적절한 교육시기와 교육시행기관, 강좌형태, 함께 듣는 사람)으로 측정하였다.

### 2.3.2 사회적 부모역할 인식

사회적 부모역할 인식은 신혜영[16]의 사회적 부모역할과 태도 측정도구를 여성남[17]이 재구성한 23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부모역할 인식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여성남[1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3이었다.

### 2.3.3 예비부모교육 요구도와 준비도

예비부모교육 내용 측정도구는 오영희[18]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52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이현자[19]가 40문항으로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자기이해 6문항, 배우자 선택 및 결혼 7문항, 임신과 출산 8문항, 자녀양육 12문항, 가족관계와 부모역할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에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요구도와 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해 4점 리커트 척도로 교육요구도는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필요하다' 4점이며 준비도는 '전혀 모름' 1점에서 '잘 알고 있음'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요구도와 준비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오영희[18]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97이었으며, 이현자[19]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9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교육요구도 Cronbach  $\alpha$  =.97, 준비도 Cronbach  $\alpha$  =.97이었다.

## 2.4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은 2018년 11월 1일~ 2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고, 연구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하고 서명한 미혼남녀 196명을 편의표집하였다. 표본 수 결정은 G\*power 3.10 프로그램[20]을 이용하여 효과 크기(effect size) .25(중간), 유의수준( $\alpha$ ) .05, 통계적 검정력(1- $\beta$ ) .8, 변수 3-5로 산출한 결과, 적

정표본 크기의 최소 인원은 179명으로 산출되었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210부를 자료수집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서면으로 동의한 대상자들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회수된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한 14부를 제외한 196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WIN/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교육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사회적 부모역할 인식과 예비부모교육 요구도 및 준비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예비부모교육 요구도와 준비도의 상호차이(Gap)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 4) 예비부모교육 요구도와 준비도의 상호차이를 IPA Matrix로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교육관련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교육관련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대부분 여성이었고(163명), 연령은 20세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94명), 직업 상태는 대학생이 가장 많았다. 출생순위의 경우 첫째가 가장 많았고(88명), 이성 교제 경험은 '있다'가 171명, 아이 돌본 경험은 있는 경우가 90명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에 대한 생각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생각이 1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적령기에 대한 생각은 '적령기가 있다'가 74명으로, 많은 수의 대상자가 결혼적령기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결혼의향은 '할 생각이 있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이 결혼생각이 있었으며(121명), 배우자 선택기준은 '성격'이 6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 9명으로 가장 낮았다. 자녀출산계획에서는 105명이 '낳을 것'이라고 응답하였

표 1. 대상자의 특성 (N=196)

Variables	Categories	n(%)
성별	남	33(16.8)
	여	163(83.2)
연령 (year)	≤ 20	94(48.0)
	21~25	86(43.9)
	≥ 26	16( 8.2)
직업상태	대학생	121(61.7)
	취업준비중	34(17.3)
	직장인	41(20.9)
출생순위	첫째	88(44.9)
	둘째	82(41.8)
	셋째이상	9( 4.6)
	외동	17( 8.7)
이성교제경험	있다	171(87.2)
	없다	25(12.8)
아이돌봄 경험	있다	90(45.9)
	없다	106(54.1)
결혼에 대한 생각	반드시해야한다	11( 5.6)
	하는 편이 좋다	64(32.7)
	해도되고 안해도 된다	104(53.1)
	하지 않는 편이 좋다	8( 4.1)
	생각해본적 없다	9( 4.6)
결혼적령기에 대한 생각	결혼적령기는 있다	74(37.8)
	결혼적령기는 없다	122(62.2)
결혼의향	할 것이다	121(61.7)
	안 할 것이다	48(24.5)
	생각해본적없다	27(13.8)
배우자 선택기준	외모 등의 신체적 조건	12( 6.1)
	경제적 능력	52(26.5)
	종교	9( 4.6)
	신뢰와 사랑	42(21.4)
	성격	63(32.1)
	집안환경	18( 9.2)
자녀출산계획	낳을 것이다	105(53.6)
	낳지 않을 것이다	34(17.3)
	생각해본적 없다	57(29.1)
아기양육이 어려운 이유	경제적 부담	128(65.3)
	심신의 스트레스	35(17.9)
	부부시간 방해	5( 2.6)
	자아실현 방해	28(14.3)
희망자녀수	1명	54(27.6)
	2명	107(54.6)
	3명	21(10.7)
	≥ 4명	7(3.6)
	낳지 않고 입양할 것이다	7(3.6)
희망성별	아들 딸 상관없다	129(65.8)
	아들	10(5.1)
	딸	57(29.1)
양육책임자에 대한 생각	아버지가 책임	5( 2.6)
	부부모두가 책임	173(88.3)
	가족 중 가능한 사람이 책임	18(9.2)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	매우필요하다	117(59.7)
	조금필요하다	55(28.1)
	보통이다	24(12.2)

Variables	Categories	n(%)
예비부모교육경험	있다	17(8.7)
	없다	179(91.3)
예비부모교육의 정규교육 포함에 대한 생각	매우 동의	27(13.8)
	약간 동의	73(37.2)
	보통	80(40.8)
	동의하지 않음	16( 8.2)
예비부모교육의 적절한 교육시기	고등학교때	40(20.4)
	고등학교 졸업후	58(29.6)
	결혼날짜가 확정된 후	58(29.6)
	결혼후 첫아이 임신 때	40(20.4)
예비부모교육의 적절한 교육기관	고등학교	35(17.9)
	대학교	28(14.3)
	공공기관	102(52.0)
	사회단체 혹은 종교단체	31(15.8)
예비부모교육의 적절한 강좌형태	소그룹 워크숍	64(32.7)
	강의	50(25.5)
	사례중심	77(39.3)
	온라인 교육	5( 2.6)
	혼자	8( 4.1)
예비부모교육을 같이 듣고 싶은 사람	친구	48(24.5)
	배우자	140(71.4)

으며, 아기 양육이 어려운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 128명으로 가장 많았다. 희망자녀수는 '2명'을 원하는 경우가 10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희망성별은 '아들딸 상관없다'가 129명으로 가장 많았다. 양육책임자에 대한 생각으로 '부부 모두 가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173명).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매우필요하다'가 117명으로 대부분의 대상자가 예비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예비부모교육경험의 경우 179명이 교육받은 적이 있으며, 예비부모교육의 정규과정 교육의 포함을 원하는 경우는 '보통이다'가 80명이었고, 100명이 정규과정의 포함을 동의하였다. 예비부모교육의 적절한 시기는 '고등학교 졸업 후' 그리고 '결혼날짜가 확정된 후'가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좌의 적절한 형태는 '사례중심'이 가장 많았으며(77명), 교육을 같이 듣고 싶은 사람은 '배우자'인 경우가 140명이었다.

###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교육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부모역할 인식, 교육요구도와 준비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교육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부모역할 인식, 교육요구도와 준비도는 [표 2]와 같다.

표 2.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사회적 부모역할 인식, 교육요구도와 역할준비도

(N=196)

Variables	Categories	사회적 부모역할 인식		교육요구도		역할준비도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성별	남	3,26±0,22	-0,38(.001)	3,36±0,36	-1,83(.069)	2,30±0,46	-3,16(.002)
	여	3,44±0,27		3,50±0,41		2,61±0,52	
연령 (year)	≤ 20	3,45±0,25 <sup>a</sup>	4,78(.009) a)c	3,50±0,43	0,47(.629)	2,64±0,46 <sup>a</sup>	7,41(.007) a)c
	21-25	3,39±0,28 <sup>b</sup>		3,47±0,39		2,52±0,57 <sup>b</sup>	
	≥ 26	3,24±0,28 <sup>c</sup>		3,40±0,40		2,27±0,44 <sup>c</sup>	
직업상태	취업준비중	3,40±0,28	0,09(.915)	3,52±0,41	1,91(.152)	2,24±0,41	1,89(.154)
	대학생	3,42±0,25		3,50±0,41		2,61±0,48	
	직장인	3,40±0,32		3,37±0,38		2,43±0,68	
출생순위	첫째	3,40±0,26	1,03(.380)	3,49±0,42	1,49(.218)	2,58±0,55	2,02(.113)
	둘째	3,44±0,27		3,51±0,41		2,61±0,46	
	셋째이상	3,34±0,28		3,37±0,34		2,35±0,61	
	외동	3,34±0,30		3,30±0,35		2,32±0,56	
이성교제경험	있다	3,40±0,27	-1,39(.167)	3,47±0,41	-0,65(.516)	2,56±0,51	0,36(.719)
	없다	3,48±0,27		3,53±0,37		2,52±0,62	
아이돌본경험	있다	3,45±0,24	1,85(.065)	3,53±0,41	1,75(.082)	2,70±0,47	3,61(<.001)
	없다	3,38±0,29		3,43±0,40		2,44±0,53	
결혼에 대한 생각	반드시해야한다	3,40±0,13	0,91(.458)	3,52±0,25	0,33(.858)	2,55±0,60	1,59(.180)
	하는 편이 좋다	3,44±0,31		3,44±0,36		2,63±0,56	
	해도되고 안해도된다	3,39±0,24		3,49±0,44		2,53±0,44	
	하지 않는 편이 좋다	3,53±0,17		3,57±0,48		2,78±1,02	
	생각해본적 없다	3,32±0,41		3,40±0,52		2,25±0,36	
결혼적령기에 대한 생각	결혼적령기는 있다	3,46±0,27	1,90(.059)	3,56±0,42	2,28(.024)	2,68±0,52	2,61(.010)
	결혼적령기는 없다	3,38±0,27		3,42±0,40		2,48±0,51	
결혼의향	할 것이다	3,34±0,28	1,78(.172)	3,51±0,41	1,44(.238)	2,62±0,52	2,05(.132)
	안 할 것이다	3,37±0,22		3,42±0,42		2,50±0,58	
	생각해본적없다	3,35±0,30		3,40±0,36		2,42±0,37	
배우자 선택기준	외모 등의 신체적 조건	3,58±0,33	1,99(.081)	3,37±0,40	2,56(.029)	2,56±0,40	1,07(.379)
	경제적 능력	3,40±0,26		3,36±0,42		2,56±0,54	
	종교	3,31±0,20		3,28±0,43		2,25±0,55	
	신뢰와 사랑	3,39±0,26		3,49±0,39		2,63±0,55	
	성격	3,38±0,26		3,59±0,38		2,53±0,46	
	집안환경	3,52±0,28		3,52±0,41		2,69±0,64	
자녀출산계획	낳을 것이다	3,42±0,28	0,22(.805)	3,52±0,44	1,75(.177)	2,65±0,52 <sup>a</sup>	3,74(.025) a)c
	낳지 않을 것이다	3,41±0,24		3,46±0,35		2,53±0,56 <sup>b</sup>	
	생각해본적 없다	3,39±0,27		3,40±0,38		2,42±0,47 <sup>c</sup>	
아기양육이 어려운 이유	경제적 부담	3,42±0,29	1,31(.274)	3,45±0,44	0,78(.510)	2,57±0,51	0,25(.865)
	심신의 스트레스	3,41±0,24		3,52±0,36		2,59±0,41	
	부부시간 방해	3,18±0,21		3,39±0,30		2,42±0,57	
	자아실현 방해	3,41±0,21		3,55±0,35		2,51±0,67	
희망자녀수	1명	3,45±0,27	1,36(.251)	3,51±0,37	0,97(.424)	2,62±0,59	2,20(.071)
	2명	3,37±0,27		3,47±0,42		2,51±0,47	
	3명	3,46±0,30		3,44±0,43		2,72±0,48	
	≥ 4명	3,52±0,17		3,60±0,35		2,78±0,69	
	낳지않고 입양할것이다	3,40±0,31		3,22±0,47		2,18±0,48	

Variables	Categories	사회적 부모역할 인식		교육요구도		역할준비도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희망성별	아들 딸 상관없다	3.41±0.28	2.64(.074)	3.48±0.39	0.04(.964)	2.57±0.56	1.81(.167)
	아들	3.12±0.34		3.45±0.47		2.26±0.48	
	딸	3.44±0.23		3.47±0.45		2.58±0.43	
양육책임자에 대한 생각	아버지가 책임	3.40±0.35	0.41(.663)	3.52±0.26	1.26(.287)	2.31±0.19	0.95(.389)
	부부모두가 책임	3.40±0.27		3.49±0.41		2.56±0.53	
	가족 중 가능한 사람이 책임	3.46±0.27		3.33±0.46		2.67±0.48	
양육책임자에 대한 생각	아버지가 책임	3.40±0.35	0.41(.663)	3.52±0.26	1.26(.287)	2.31±0.19	0.95(.389)
	부부모두가 책임	3.40±0.27		3.49±0.41		2.56±0.53	
	가족 중 가능한 사람이 책임	3.46±0.27		3.33±0.46		2.67±0.48	
예비부모교육경험	있다	3.47±0.29	0.35(.728)	3.60±0.42	1.03(.310)	2.57±0.53	0.80(.430)
	없다	3.44±0.29		3.46±0.43		2.44±0.47	
예비부모교육의 정규교육 포함에 대한 생각	매우 동의	3.49±0.30	1.38(.252)	3.73±0.31 <sup>a</sup>	6.46(<.001) a,>c,d	2.71±0.71	1.64(.181)
	약간 동의	3.42±0.26		3.52±0.36 <sup>b</sup>		2.60±0.44	
	보통	3.38±0.26		3.38±0.39 <sup>c</sup>		2.50±0.50	
	동의하지 않음	3.35±0.29		3.33±0.61 <sup>d</sup>		2.43±0.56	
예비부모교육의 적절한 교육시기	고등학교때	3.41±0.29	0.27(.844)	3.52±0.43	1.28(.284)	2.51±0.61	1.41(.240)
	고등학교 졸업후	3.39±0.25		3.52±0.34		2.66±0.45	
	결혼날짜가 확정된 후	3.43±0.27		3.47±0.46		2.57±0.58	
	결혼후 첫아이 임신 때	3.39±0.28		3.37±0.39		2.45±0.40	
예비부모교육의 적절한 교육기관	고등학교	3.35±0.27	0.86(.461)	3.46±0.43	0.62(.603)	2.54±0.58	1.33(.266)
	대학교	3.42±0.28		3.56±0.36		2.59±0.42	
	공공기관	3.41±0.24		3.47±0.40		2.51±0.48	
	사회단체 혹은 종교단체	3.46±0.33		3.42±0.46		2.72±0.65	
예비부모교육의 적절한 강좌형태	소그룹 워크숍	3.40±0.26	2.22(.087)	3.39±0.16	6.65(<.001)	2.39±0.48	6.03(.001)
	강의	3.35±0.29		3.38±0.38		2.53±0.46	
	사례중심	3.46±0.25		3.63±0.35		2.74±0.54	
	온라인 교육	3.30±0.39		3.16±0.10		2.29±0.67	
예비부모교육을 같이 듣고 싶은 사람	혼자	3.29±0.31	1.26(.286)	3.11±0.67	3.63(.028)	2.46±0.42	0.61(.549)
	친구	3.38±0.27		3.46±0.37		2.50±0.53	
	배우자	3.42±0.27		3.50±0.39		2.58±0.52	

표 3. 사회적 부모역할 인식, 교육요구도, 역할준비도

(N=196)

Variables	Range	Mean±SD	Min	Max
사회적 부모역할 인식	1-5	3.41±0.27	2.70	4.04
교육요구도	1-4	3.48±0.41	2.18	4.00
자기이해	1-4	3.37±0.46	2.17	4.00
배우자선택 및 결혼	1-4	3.42±0.46	2.00	4.00
임신과 출산	1-4	3.54±0.44	2.13	4.00
자녀양육	1-4	3.51±0.44	2.50	4.00
가족관계나 부모역할	1-4	3.49±0.50	1.14	4.00
역할준비도	1-4	2.65±0.57	1.05	4.00
자기이해	1-4	2.77±0.44	1.00	4.00
배우자선택 및 결혼	1-4	2.56±0.12	1.00	4.00
임신과 출산	1-4	2.45±0.63	1.00	4.00
자녀양육	1-4	2.48±0.62	1.00	4.00
가족관계나 부모역할	1-4	2.65±0.57	1.00	4.00

표 4. 예비부모교육 요구도와 준비도 상호차이(Gap)

(N=196)

	Variables	Demand	Preparation	Gap	t	p
		Mean±SD	Mean±SD	Mean±SD		
1	자신의 성격에 대한 이해	3.49±0.57	2.90±0.69	0.59±0.84	7.30	<.001
2	자신이 받은 부모양육경험 인식	3.22±0.62	2.77±0.76	0.45±0.87	7.26	<.001
3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3.38±0.56	2.73±0.72	0.65±0.85	10.60	<.001
4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방법	3.41±0.58	2.73±0.72	0.68±0.80	11.79	<.001
5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	3.48±0.57	2.77±0.78	0.71±0.91	10.87	<.001
6	원 가족과의 건강한 관계 맺는 법	3.37±0.58	2.70±0.73	0.67±0.82	11.32	<.001
	자기이해	3.37±0.46	2.77±0.57	0.60±0.65	12.86	<.001
7	배우자 선택의 중요성	3.35±0.61	2.65±0.78	0.70±0.85	11.52	<.001
8	현명한 결혼준비과정	3.41±0.55	2.47±0.77	0.95±0.90	14.80	<.001
9	남성과 여성의 특성차이	3.36±0.66	2.74±0.69	0.62±0.86	10.13	<.001
10	배우자와의 갈등 해소법	3.45±0.64	2.54±0.78	0.91±1.04	12.17	<.001
11	배우자 가정과의 관계 유지법	3.39±0.64	2.46±0.78	0.93±0.93	13.89	<.001
12	결혼으로 발생하는 변화에 따른 대처방법	3.50±0.57	2.41±0.74	1.09±0.90	16.96	<.001
13	가사분담 및 집안일 관련정보	3.49±0.57	2.62±0.75	0.88±0.84	14.57	<.001
	배우자 선택 및 결혼	3.42±0.46	2.55±0.59	0.87±0.69	17.43	<.001
14	건강한 자녀출산을 위한 임신준비	3.61±0.53	2.47±0.78	1.13±0.88	18.09	<.001
15	올바른 피임방법	3.57±0.55	2.72±0.72	0.85±0.88	13.49	<.001
16	부부가 함께 임신기를 보내는 방법	3.54±0.51	2.44±0.73	1.10±0.91	16.96	<.001
17	태아의 발달에 따른 이해	3.53±0.53	2.47±0.81	1.06±0.81	18.30	<.001
18	임산부 신체변화 긍정적으로 이해하기	3.49±0.58	2.47±0.80	1.02±0.84	17.03	<.001
19	출산과정에 관련한 내용	3.50±0.61	2.43±0.84	1.07±0.94	15.74	<.001
20	출산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	3.53±0.54	2.33±0.79	1.20±0.93	18.08	<.001
21	출산후 부부관계 개선방법	3.54±0.54	2.26±0.76	1.28±0.93	19.22	<.001
	임신과 출산	3.54±0.44	2.45±0.63	1.09±0.70	21.77	<.001
22	출산후 신생아 양육	3.62±0.49	2.31±0.84	1.31±0.95	19.25	<.001
23	아이의 발달적 특징 이해	3.52±0.59	2.37±0.77	1.15±0.89	19.08	<.001
24	출생순위에 따른 아이의 지도방법	3.45±0.63	2.37±0.80	1.08±0.86	17.46	<.001
25	양육태도에 따른 자녀의 발달	3.52±0.56	2.37±2.42	1.15±0.81	18.96	<.001
26	자신의 감정을 아이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방법	3.57±0.55	2.52±0.72	1.05±0.90	16.26	<.001
27	아이의 문제 행동 지도 방법	3.53±0.55	2.48±0.80	1.05±0.85	17.31	<.001
28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방법	3.49±0.56	2.62±0.73	0.88±0.85	14.36	<.001
29	아동학대, 방임 유형과 예방	3.54±0.51	2.59±0.70	0.96±0.79	16.91	<.001
30	아이를 위한 올바른 학습지도방법	3.53±0.56	2.49±0.71	1.04±0.79	18.34	<.001
31	아이를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	3.56±0.55	2.63±0.75	0.93±0.86	15.10	<.001
32	아이 입장에서 바라보는 방법	3.54±0.58	2.57±0.70	0.96±0.79	17.07	<.001
33	조부모와 함께 하는 양육방법	3.28±0.73	2.36±0.76	0.92±0.85	15.05	<.001
	자녀양육	3.51±0.44	2.48±0.62	1.04±0.65	22.33	<.001
34	가족 구성원 발달 단계 이해	3.43±0.63	2.47±0.79	0.96±0.82	16.25	<.001
35	가족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3.56±0.57	2.62±0.67	0.94±0.83	15.83	<.001
36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	3.49±0.58	2.81±0.74	0.69±0.84	11.38	<.001
37	자신과 가족의 건강관리 방법	3.47±0.60	2.69±0.76	0.79±0.92	11.98	<.001
38	바람직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	3.52±0.57	2.77±0.73	0.75±0.81	12.95	<.001
39	건강한 소비생활을 위한 방법	3.44±0.60	2.71±0.63	0.73±0.76	13.47	<.001
40	맞벌이 가정의 양육 어려움 해소법	3.48±0.60	2.48±0.78	0.99±0.92	15.16	<.001
	가족관계와 부모역할	3.49±0.50	2.65±0.58	0.84±0.66	17.67	<.001
	total	3.47±0.41	2.56±0.52	0.92±0.56	22.80	<.001



사회적 부모역할 인식은 성별( $t=-0.38, p<.001$ ), 연령( $F=4.78, p=.009$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의 경우, 사후분석결과 20세 이하가 26세 이상보다 사회적 부모역할 인식이 높았다. 교육요구도는 결혼적령기에 대한 생각( $t=2.28, p=.024$ ), 배우자 선택기준( $F=2.56, p=.029$ ), 예비부모교육의 정규교육 포함에 대한 생각( $F=6.46, p<.001$ ), 예비부모교육의 적절한 강좌형태( $F=6.65, p<.001$ ), 예비부모교육을 같이 듣고 싶은 사람( $F=3.63, p=.028$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결과 예비부모교육의 정규교육 포함에 대한 생각의 경우, 정규교육 포함을 '매우 동의'가 '보통'이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보다 교육요구도가 높았다. 준비도는 성별( $t=-3.16, p=.002$ ), 연령( $F=7.41, p=.007$ ), 아이돌봄 경험( $t=3.61, p<.001$ ), 결혼적령기에 대한 생각( $t=2.61, p=.010$ ), 자녀출산계획( $F=3.74, p=.025$ ), 예비부모교육의 적절한 강좌형태( $F=6.03,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결과 20세 이하가 26세 이상보다 역할 준비도가 높았다.

### 3.3 사회적 부모역할 인식과 예비부모교육 요구도와 준비도

대상자의 사회적 부모역할 인식과 예비부모교육 요구도 및 준비도는 [표 3]와 같다.

사회적 부모역할 인식은 평균  $3.41\pm 0.27$ 점(5점 만점)이었다. 교육요구도는 평균  $3.48\pm 0.41$ 점(4점 만점)이었고, 준비도는 평균  $2.65\pm 0.57$ 점(4점 만점)으로, 교육요구도가 준비도보다 높았다. 하위요인으로 살펴보면, 교육요구도의 경우 '자기이해'의 경우 평균  $3.37\pm 0.46$ 점(4점 만점), '배우자선택 및 결혼' 평균  $3.42\pm 0.46$ 점(4점 만점), '임신과 출산' 평균  $3.54\pm 0.44$ 점(4점 만점), '자녀양육' 평균  $3.51\pm 0.44$ 점(4점 만점), '가족관계와 부모역할' 평균  $3.49\pm 0.50$ 점(4점 만점)이었다. 준비도의 경우 '자기이해'의 경우 평균  $2.77\pm 0.44$ 점(4점 만점), '배우자선택 및 결혼' 평균  $2.56\pm 0.12$ 점(4점 만점), '임신과 출산' 평균  $2.45\pm 0.63$ 점(4점 만점), '자녀양육' 평균  $2.48\pm 0.62$ 점(4점 만점), '가족관계나 부모역할' 평균  $2.65\pm 0.57$ 점(4점 만점)이었다.

### 3.4 예비부모교육 요구도와 준비도의 상호차이 (Gap)

예비부모교육 요구도와 준비도의 상호차이는 [표 4]과 같다.

예비부모교육은 자기이해, 배우자 선택 및 결혼,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 가족관계와 부모역할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예비부모교육의 요구도는 평균  $3.47\pm 0.41$ 점(4점 만점)이었다. 각 영역 중 가장 요구도가 높은 영역은 '임신과 출산( $3.54\pm 0.44$ 점)'이었고, 그 다음으로 '자녀양육( $3.51\pm 0.44$ 점)', '가족관계와 부모역할( $3.49\pm 0.50$ 점)', '배우자 선택 및 결혼( $3.42\pm 0.46$ 점)'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영역은 '자기이해( $3.37\pm 0.46$ 점)'이었다. 준비도는 평균  $2.56\pm 0.52$ 점(4점 만점)이었다. 세부영역 중 자기이해( $2.77\pm 0.57$ 점)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가족관계와 부모역할( $2.65\pm 0.58$ 점)', '배우자 선택 및 결혼( $2.55\pm 0.59$ 점)', '자녀양육( $2.48\pm 0.62$ 점)'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영역은 '임신과 출산( $2.45\pm 0.63$ 점)'이었다.

전체적으로 예비부모교육 요구도는 준비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세부영역 모두 교육요구도와 준비도의 차이가 있었다( $p<.05$ ).

### 3.5 예비부모교육 요구도와 준비도 IPA Matrix

예비부모교육 요구도와 준비도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2][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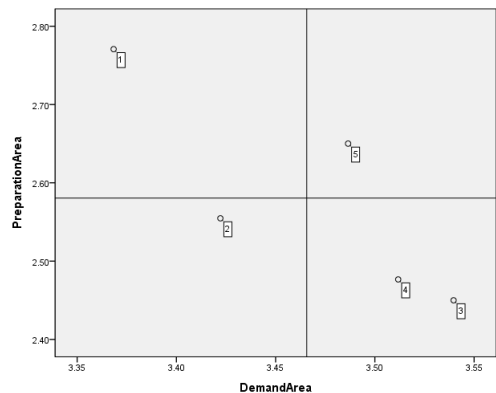


그림 2. 요구도와 준비도의 영역에 따른 매트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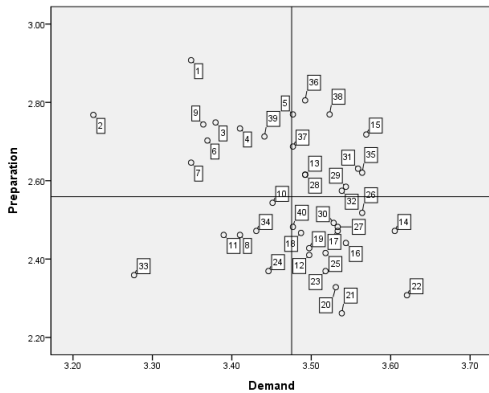


그림 3. 요구도와 준비도의 세부속성에 따른 매트릭스

분석 결과, 계속 유지·강화해야 할 부분은 ‘가족관계나 부모역할’이었으며, 준비도를 줄이거나 투입될 노력을 다른 평가속성에 투입하도록 권장하는 영역은 ‘자기 이해’로 나타났다. 더 이상의 노력 투입이 불필요하며 앞으로 개선을 요하는 영역은 ‘배우자의 선택 및 결혼’이었으며, 향후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영역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 영역으로 나타났다.

세부 속성별 분석결과 (5)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방법, (13)가사분담 및 집안일 관련 정보, (15)올바른 피임방법 (28)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방법, (29)아동학대, 방임 유형과 예방, (31)아이를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 (32)아이 입장에서 바라보는 방법, (35)가족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36)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 (37)자신과 가족의 건강관리방법, (38)바람직한 스트레스 해소방법 등의 속성이 계속 유지·강화해야 할 영역인 ‘1사분면’에 포함되었다.

(1)자신의 성격에 대한 이해, (2)자신이 받은 부모양육경험 인식, (3)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4)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방법, (6)원가족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 (7)배우자 선택의 중요성, (9)남성과 여성의 특성차이, (39)건강한 소비생활을 위한 방법 등은 준비도를 줄이거나 투입될 노력을 다른 평가속성에 투입하도록 권장하는 영역인 ‘2사분면’에 포함되었다.

(8)현명한 결혼준비과정, (10)배우자 선택의 중요성,

(11)배우자 가정과의 관계 유지법, (24)출생순위에 따른 아이의 지도방법, (33)조부모와 함께 하는 양육방법, (34)가족 구성원 발달 단계 이해 등은 더 이상의 노력투입이 불필요한 영역인 ‘3사분면’에 포함되었다.

(12)결혼으로 발생하는 변화에 따른 대처방법, (14)건강한 자녀출산을 위한 임신준비, (16)부부가 함께 임신을 보내는 방법, (17)태아의 발달에 따른 이해, (18)임산부 신체변화 긍정적으로 이해하기, (19)출산과정에 관련한 내용, (20)출산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방법, (21)출산후 부부관계 개선방법, (22)출산후 신생아 양육, (23)아이의 발달적 특징 이해, (25)양육태도에 따른 자녀의 발달, (26)자신의 감정을 아이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방법, (27)아이의 문제 행동 지도 방법, (30)아이를 위한 올바른 학습지도방법, (40)맞벌이 가정의 양육 어려움 해소법 등은 요구도는 높으나, 준비도가 낮은 영역에 속하여 더 많은 수행이 요구되는 영역인 ‘4사분면’에 포함되었다.

#### 4. 논의

본 연구는 미혼남녀의 사회적 부모관련 인식, 예비부모교육 교육요구도 및 준비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조사연구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사회적 부모역할 인식은 평균 3.41점(5점 만점)이었으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같은 도구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된 박소현 [14]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수준은 평균 3.46점(5점 만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나 남자 3.45점, 여자 3.46점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성남[17]의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예비부모역할에 대한 남녀의 차이는 없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본 연구에는 성별에 대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본 연구 대상자의 구성이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결과해석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부모역할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은 연령이었다. 20세 이하가 26세 이상보다 사회적 부모역할 인식이 높았다. 이는 최근 중고등학교에서는 사회적 부모역할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이러한 결과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결혼적령기에 가까워질수록 사회적 부모역할 인식은 높아지는 것이 타당하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역할 인식이 낮아지는 것은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다. 다른 도구이지만 이선정[21]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은 가족 간 존중과 애정을 보이고, 역할을 공유하고 문제해결력을 지니며,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가족 간 유대가 좋으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가족 속에서 자신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부모역할의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예비부모들이 역할수행 하는데 필요한 지식, 가치 및 태도, 기술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학과정에서 예비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선행연구[14]에서 대학생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사회적 부모역할 인식에 정적 영향을 준다. 따라서 미혼남녀의 사회적 부모역할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당사자이면서 잠재적 의사결정자라 할 수 있는 대학생은 올바른 결혼관, 부모관을 정립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22]. 또한 선행연구[5][8][13]에서 자녀를 갖고자 하는 동기가 강한 사람들일수록 미래의 부모역할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보다 강하게 느끼므로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예비부모교육 요구도는 '매우 필요하다'가 '조금 필요하다', '보통이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교육요구도 또한 높았다. 예비부모교육의 정규교육포함에 대한 생각은 '매우 동의'가 '보통', '동의하지 않음'보다 교육요구도가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예비부모 준비도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20세 이하보다 26세 이상에서 준비도가

낮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예비부모 준비도가 낮은 것도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다. 자녀출산계획은 '낳을 것이다'가 '생각해 본 적 없다'보다 높았다.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필요하다'가 '보통이다'보다 예비부모 준비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부모됨의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면, 바람직한 자녀양육이 이루어지지 못함은 물론, 부모의 아동학대나 방임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개인면담을 실시한 이문옥과 심미영[1]의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예비부모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되어 무책임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출산 전부터 출산관련, 아이의 발달과 성장과정에 따른 예비부모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기를 원하였다. 그러므로 특히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부모되기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 부모역할 인식 형성을 도와주면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준비와 기대를 갖게 할 것이다.

예비부모교육 요구도는 평균 3.48점(4점 만점)이었고 준비도는 평균 2.65점(4점 만점)으로, 교육요구도가 준비도보다 높았다.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교육요구도의 경우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 '가족관계나 부모역할', '배우자선택 및 결혼', '자기이해' 순이었다. 준비도의 경우 '자기이해', '가족관계나 부모역할', '배우자선택 및 결혼', '자녀양육', '임신과 출산' 순이었다.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매우 높았지만 준비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교육은 교육해야 할 영역과 내용이 매우 넓은 분야이므로 교육요구도와 준비도에 맞춘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IPA Matrix 분석 결과, 계속 유지·강화해야 할 부분은 '가족관계나 부모역할'이었으며, 준비도를 줄이거나 투입될 노력을 다른 평가속성에 투입하도록 권장하는 영역은 '자기이해'로 나타났다. 더 이상의 노력 투입이 불필요하며 앞으로 개선을 요하는 영역은 '배우자의 선택 및 결혼'이었으며, 향후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영역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영역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은 부모기에 적절한 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자녀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교육에 참여한 부모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부모를 길러내는 사회적 측면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어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IPA Matrix 상의 D영역 즉, 요구도는 높으나 준비도가 낮은 ‘임신과 출산’ 과 ‘자녀양육’ 등에 대해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감소대책을 위한 원인 파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IPA를 사용하여 예비부모교육의 요구도와 준비도를 도면상에 표시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미혼남녀의 예비부모교육의 교육요구도와 준비도의 상호차이를 알아보고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며, 이를 부모교육의 요구도와 준비도를 반영한 현실적·통합적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요구도와 준비도가 높은 가족관계나 부모역할 영역은 계속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요구도와 준비도가 낮은 배우자의 선택 및 결혼 영역을 더 이상의 노력투입이 불필요한 영역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의 준비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요구도는 높으나 준비도가 낮은 ‘임신과 출산’ 과 ‘자녀양육’ 등은 이론적 지식 전달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술습득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유지강화 할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또한, 미혼남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달단계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바탕으로 연령층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K도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여자의 비율이 높으므로 해석에는 제한점이 있고, 미혼남녀 전체로 확대하여 일반화하는 데에도 제한점

이 있다.

## 참고 문헌

- [1] 이문옥, 심미영, "예비부모의 자녀출산 및 양육관,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6권, 제4호, pp.261-286, 2011.
- [2] 김선주,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효과연구," 교양교육연구, 제10권, 제3호, pp.383-414, 2016.
- [3] 서성희, 김수진,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 대상 Satir 변형체계치료모델 적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제24권, 제4호, pp.330-341, 2015.
- [4] 최윤정, 김수희, 부모교육, 공동체, 2011.
- [5] 유안진, 신양재, "대학생의 부모됨 동기와 부모역할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제31권, 제4호, pp.141-155, 1993.
- [6] 이은화, 한국부모교육학회(편), 부모교육의 목적, 서울:교육과학사, 1997.
- [1] 정계숙, 문혁준, 김명애, 김혜금, 심희옥, 안효진 양성은, 이정희, 이희선, 정태희, 제경숙, 한세영, 부모교육, 서울:창지사, 2012.
- [7] 김길숙,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현황 및 내용분석 연구," 열린부모교육학회, 제9권, 제4호, pp.273-291, 2017.
- [8] 원성희,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 D. W. Winnicott의 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9] 이병래, "대학생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아동교육연구, 제23권, 제1호, pp.133-152, 2003.
- [10] 허영림, "대학생을 위한 예비부모교육의 교양교육 과목 개발 연구," 교양교육연구, 제1권, 제2호, pp.165-191, 2007.
- [11] 김정미, "예비부모프로그램의 구성과 적용효과," 유아교육학 논집, 제8권, 제4호, pp.65-85,

2004.

- [12] 이은정, 강영식, 박정환, "예비부모의 부모역할과 자녀관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3권, 제4호, pp.1566-1573, 2012.
- [13] 박소현, *대학생의 결혼관이 사회적 예비부모역할에 미치는 영향*, 공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14] J. A. Martilla and J. C. James,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The journal of marketing, Vol.41, No.1, pp.77-79, 1977.
- [15] 신혜영, *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16] 여성남, *고등학생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예비부모역할에 미치는 영향*,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17] 오영희,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요구와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18] 이현자,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인식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19] F. Faul, E. Erdfelder, A. Buchner, and A. G. Lang,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41, No.4, pp.1149-1160, 2009.
- [20] 이선정, "중학생의 가족건강성에 따른 미래부모역할 인식,"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6권, 제2호, pp.301-311, 2009.
- [21] 백혜정, 임희진, 김현철, 유성철, *2017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7.

저자 소개

제 남 주(Nam Joo Je)

정희원



- 2014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6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4년 9월 ~ 2016년 8월 :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6년 9월 ~ 2017년 2월 : 경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임신·분만, 수태 전 관리, 여성 건강, 성교육, 생명의료윤리

박 미 라(Meera Park)

정희원



- 2010년 8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6년 8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1년 3월 ~ 2013년 2월 : 대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겸임교수
- 2013년 3월 ~ 2015년 12월 : 호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신생아관리, 임신·분만, 모유수유, 성교육